

2016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사회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의 글을 그렇게 힘 있게 만든 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그의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시에서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라고, 즉 우리가 흔히 그렇게 되어버리곤 하는 거짓된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정직함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응당 그렇게 되어야 할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무엇인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며,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진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무엇보다 네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그리하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는
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수 있으리니.

제시문 (나)

우리는 내면적 자아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든 남에게든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간의 정신이 사적인 영역에 갇힐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거나 그 느낌을 표현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내면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느낌, 지각, 행동의 차이가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만든 즉각적인 인상들을 점점 더 많이 차이가 나도록 하고, 이러한 차이들을 바로 사회적 존재의 기초로서 고려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인상과 외양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거울삼으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즉각적인 인상들을 바로 우리의 인간됨으로 여긴다.

인간됨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된 것은 그 사람의 내적 본성과 부합된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양 그 자체이다. 게다가 사람의 외양이 변화하면 그 사람 자체도 변한다.

외양은 내면적 자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인간됨은 외양에 내재해 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베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를 알려주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옷차림이나 행동과 같이 세세한 것들로 이루어진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외양은 내면적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자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외양은 오히려 사적인 느낌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이다. 자아는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난 외양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됨의 기본 조건이다.

제시문 (다)

양처보(陽處父)*가 위(衛)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읍(甯邑)을 지나다가 영씨(嬴氏)의 집에 묵게 되었다. 영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

“내 오래도록 군자다운 이를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려!”

그리고 양처보가 떠날 때 그를 따라 나섰다.

영씨는 양처보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온산(溫山)까지 가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아내가 물었다.

* 양처보(陽處父)는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관리이며, ‘父’는 이름에서 ‘보’로 읽는다.

“찾던 사람을 찾았다 하시더니, 그를 따라가지 않으시다니. 집이 그리도 그리우셨나요?”

그러자 영씨가 대답했다.

“내가 그의 걸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고자 하였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싫어하게 되었소. 걸모습이란 마음이 바깥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말이라는 건 그 걸모습의 기틀이요.

마음이 그 자신에게서 생겨나 내면에서 갖춰지는 것이라면, 말은 자신의 무늬라고 할 수 있소. 말의 무늬로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마음과 말과 걸모습이 잘 부합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들이 괴리되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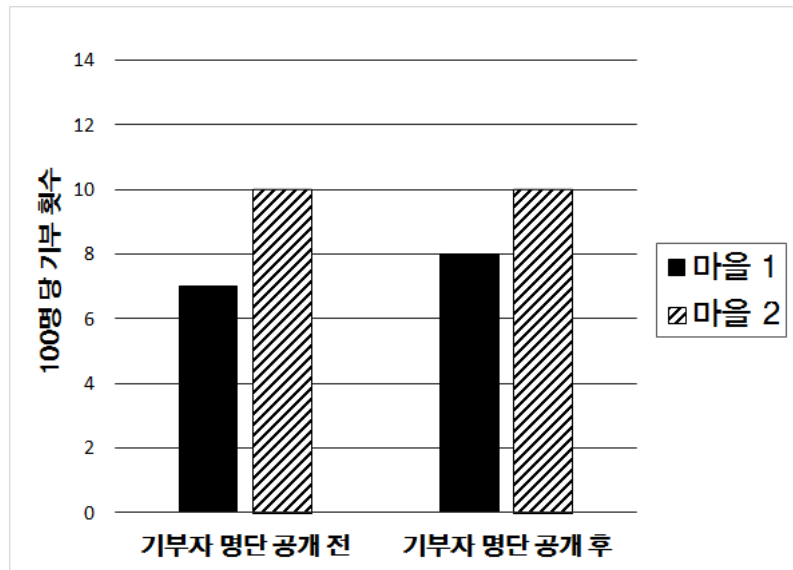
양처보의 걸모습은 아주 번듯한데, 그의 말은 들떠 있으니 이는 진정한 그가 아닌 것이요. 내면이 부족한데도 겉으로는 강한 척 한다면, 이는 그 마음을 거스르고, 결국 그 마음도 바뀌고 말게 되오. 또 내면과 걸모습이 같더라도, 말이 그것을 거스른다면 그 믿음에 손상을 주는 것이요. 무릇 말로써 그 믿음을 밝히는 것이니, 말을 중시하기를 기틀 잡고 있듯이 해야 하며, 오래 생각해보고 입 밖에 내야 하는 것이니 어찌 경시할 수 있겠소! 이제 양처보의 마음이 어떤지 훤히 알겠소. 걸모습을 꾸며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고집스런 성격에다 재주만을 중시하며, 근본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욕보이는 그런 자는 못사람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을 자요. 그를 따라 다니면 이로운 것 없이, 그로 인해 화를 당할까 두려워 그를 떠난 것이요.”

1년 뒤 나라 안에 난이 일어났는데, 양처보는 결국 그 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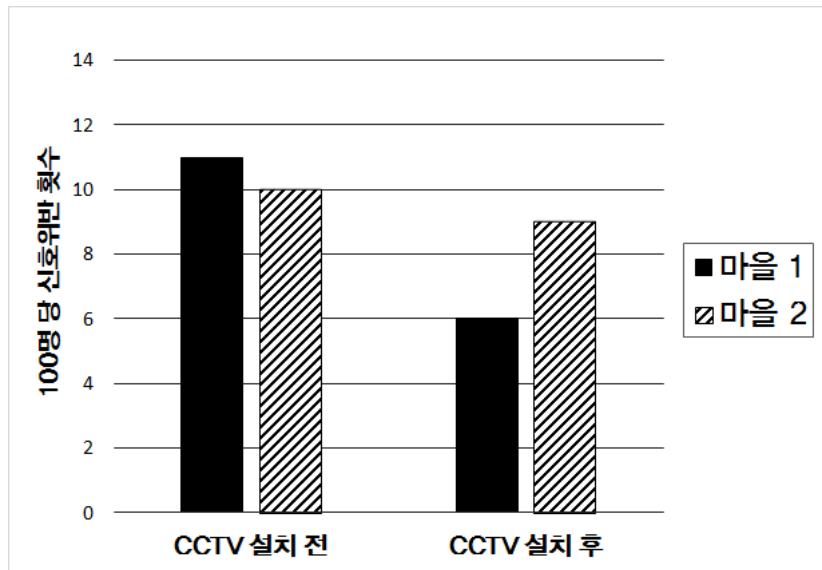
제시문 (라)

다음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간 행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실험결과이다. 인구수와 기타 사회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두 마을(마을 1, 마을 2)을 선정하였다. 특정일부터 각 마을의 기부자 명단을 해당 마을신문에 공개하였고, 도로에는 두 마을 모두 CCTV를 설치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는 이후 3개월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



<그림 2>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를 제시문 (가)와 (나)에 근거하여 해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